

# “윤석열, 전두환 옹호 석고대죄 없는 방문 후안무치”

###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면 공식 입장 표명 했어야” 도지 참배 저지 “5·18 계승·전씨 찬양 양립 불가능”

#### ‘윤석열 방문’ 오월단체·시민단체 반응

광주·전남 시민단체들과 오월단체 등이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광주와 전남지역 방문에 대해 일제히 “정략적인 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고(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 5·18자유공원을 둘러보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뒤, 목포로 향했다.

윤석열 후보의 방문 일정 동안 지역 시민단체와 오월단체 회원들은 “5·18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화순의 고(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 홍 변호사의 유족과 담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사)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는 ‘홍남순 변호사 생가 방문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윤 후보의 방문에 대해 “홍남순 변호사의 유언을 더럽히지 말라”고 비판했다. 기념사업회는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구금을 당해 고초를 겪었고, 평생을 유신과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면서 “윤 후보는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광주 시민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에 어떠한 석고대죄도 없이 광주를 방문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처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5·18자유공원에 들러 1980년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로부터 5·18 당시 구속자들

의 처참했던 상황을 들었으며, 이어 오후 4시20분께 국립5·18민주묘지로 자리를 옮겼으나 지역민들의 반발로 ‘반쪽참배’에 그쳤다.

윤 후보 방문을 반대하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생단체 회원 등은 이날 오전부터 윤후보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묘지 입구에 모였다.

이들은 묘지 입구인 민주묘문, 방명록 작성대, 추념탑 계단 등을 선점하며 참배단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았고 “오지 마라 윤석열”, “돌아가라 윤석열”, “물러가라 윤석열” 등 구호를 외치며 참배를 저지했다. 이에 선거캠프 측 인사들은 윤 후보를 대신해 국화를 준비했고, 윤 후보 지지자들은 “여기가 너희 땅이냐” 등을 외치며 맞섰다.

윤 후보가 도착하자 윤후보의 참배를 저지하려는 광주·전남 시민단체 등과 참배를 성사시키기 위한 지지자 들의 몸싸움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윤 후보는 참배단에서 50여m를 앞두고 반쪽짜리 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묘지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에 따라 2분간 경례, 묵념 등 추모 의식을 마친 윤 후보는 곧바로 준비한 성명을 발표 한 후 발길을 돌렸다.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과 사과 표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사과표명에 대해 “공허한 메세지”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후보께 답변을 요청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5·18묘지의 언저리를 떠돌고 말았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다



오월대머니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묘지 참배에 반대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더불어 5·18 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의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윤석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단체 일동’도 “윤후보의 참배는 쇼에 그친 거짓 참배”라고 규탄했

다. 시민단체들은 “전두환의 고향에 가면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고, 광주에 오면 5·18을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오월 단체의 질문에 대한 어

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윤 후보의 성명은 헛구호 일 뿐”이라면서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 발표가 아닌,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답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방문은 정략적 방문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임택 광주 동구청장 인문도시 조성 ‘1급 포상’ 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의 행복지수 높이는 동구 인문도시 조성’ 공로로 기초단체장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정지방정부 위원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정책 및 우수조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민선7기 동구 역점사업인 인문도시 조성은 일방적인 관(官) 주도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계획·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는 지난 3년여 동안 주민들이 ‘생활 속 인문’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과 연관된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강좌, 체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했다. 특히 동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 주민들의 풍부한 인문적 소

양을 키우고, 어린이와 어르신 간 어울림으로 세대 간 통합력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와 예술, 인문의 결합으로 ‘인문 르네상스 동구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동구는 올해 지난해보다 ‘책 읽는 동구’ 사업을 확대해 독서관장 도서 100권을 선정하고 지역민 4000여 명이 관내 9개 협약서점에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 1권을 제공받은 데 이어 역사적 인문과 장소 등 인문자원을 발굴해 이야기로 엮은 4가지 테마별 ‘동구 인문산책길’을 조성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준 주민, 공직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 실업, 소외, 차별 등 문제 해결 점을 인문정신에서 찾고 도시의 정신적 가치를 끌어올려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전남대병원 3년 연속 ‘A등급’ 교육부 ‘경영 가장 잘하는 병원’

전남대병원이 교육부의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에서 ‘가장 경영 잘하는 국립대병원’임을 재입증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14곳과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총점 85.391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전남대병원의 점수는 국립대병원은 물론 평가 대상 전 기관 가운데 최고였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 A등급을 획득해 경영 잘하는 병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지난 2019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투명하고 건전한 경

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등 국립대병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시 이행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안영근 병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했던 경영혁신의 성과가 1년만에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남대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경영에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신뢰받는 병원임을 입증했다”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빛고을 보은제’ 오늘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조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빛고을 보은제’를 10·11일 조선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됐던 빛고을 보은제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만의 축제가 아닌 광주 전체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빛고을 보은제’라는 새로운 형식의 통합축제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광주지역 기업 취·창업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축제는 연예인 섭외가 아닌 학생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요제와 댄스제를 운영해 역동적인 대학 문화의 장으로 마련했다.

축제기간 중 조선대학교 곳곳을 밝혀주는 LED 장미가 설치됐으며, 체육대학 앞으로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캠핑 텐트 힐링존과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됐다. /채희중 기자 chae@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